

좀 색다른 시들-1

호원

목차

- 꿈속 풍경-2	4
- 꿈속 풍경-1	5
- 보다	6
- 인격은 혼의 무게	7
- 사랑의 묘지	8
- 솟아라	9
- 다의미 시-괄호 넣기	10
- 숫자 단위	11
- 거시기 산수	14
- 번쩍 우르릉 광	15
- 해 질 녘	16
- 작은 별-2, 루시의 환상	17
- 불협화음 교향곡	18
- 수족	19
- 삼각형 설법	20
- 사계 분석	21
- 角形은 계놈, 圓은 우주	22
- 승화-퇴적층 화석 "시와 해설"	23
- 산들의 대화 - "선시"	25
- 쉼표-2	26
- 쉼표-1	27
- 찢 고구마 두 개	28
- 한국 경제 살리기	29
- 157번 버스 정류장 앞 지하도 입구	30
- 조상 나이	31
- 입체 실험시	32
- 때가 온다	33

- 호수는 밤에 운다	34
- 철학이 공통 알을 까다	35
- 장마 타는 회사원	36
- 詩 정지 추상화	37
- 바람이 흩리고 간 연인들의 전설	38
- 살만 하나요?	39
- 떠난 간 후	40
- 안단테 -"실험 시"	41
- 형식과 내용	42
- 사랑 방정식 - "실험 시"	43
- 또 하나의 하루	44
- 현대 과학 시	45
- 音詩	46
- 도덕경 따라 살기	47
-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48
- 맛의 쾌락	49
- 모자	50
- 대박 시집	51
- 구세대 프로세서	52
- 공중부양	53
- 네 발 짐승, 두 발 인간	54
- <취급주의>	55
- <욕이 나온다>	56

<꿈속 풍경-2>

스쳐 간 시상들 아득히 허끝에 감돈다
새벽 집 그림자 호수 위로 미끄러질 때
보름달 풍선 서서히 내려앉고
물새 기척 없는 호숫가는
가로등 밑 홀로인 새벽 대중 밥집

빗질 잘 된 절간 마당에 오후가 햇살 가득
사과 상자 쪽대문 아래 판자 너덜거리고
북쪽 향한 책받침만 한 창문은 신문지 발려 있다

색깔만 있고 윤곽선이 부재한 그림
뚝 없는 강 갈아 물감이 넘쳐 번진다
빠는 마디마다 바리게 빠격거리고

외다리 물새는 외로움을 먹고
기다리는 막차는 놓치게 마련
종착역은 어디에도 없다
노란 평화가 눈부시게 줄고 있고
구름 너머에는 하루의 범종 소리
나락과 극락을 오가는 희열이다.

<꿈속 풍경-1>

낮은 시네마스코프 배경
산들바람이 악보를 그리고
수면 위로 잔잔히 퍼지는
동그라미는 소리 없이 운다

바람의 한 악장에서
별을 따다 함지박에 담는다
마로니에의 안단테와
은사시의 중중모리
해산달이 가까운 늦자락 오후가
숨찬 햇살을 등에 업고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는데
계곡은 나무들의 화음 합창중이다.

*: 풍경을 마음에 두고 여러 가지 원색 물감을 멋대로 던진 추상



꿈속 풍경, 추상화-1

<보다>

“예배 봅시다.”라고 했더니
그건 틀린 말, 벌 받을 말
습관적인 종교생활의 표본
사탄 마귀들이나 하는 말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 이란다.

그렇다면
책을 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다.
신문 보는 것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라는 말은
내용을 파악한다는 말이 아니다.
집을 보는 일은
도둑이 들어도 보고만 있는 것이다.
대변을 본 것은
타인(?)의 배설물을 본 거다.
시험 본다는 것은
시험지를 본 후 그냥 나오는 것이다.
저녁 시장 보는 것은
시장을 둘러만 보고 오는 거다.

저녁상을 보는 것은
사정 보아 주는 것은
점을 보는 것은
사무 보는 것은
결론을 보는 것은
잡자리를 보는 것은
침을 보는 것은
손자 보는 것은
환자 보는 것은
이득 보는 것은
맛보는 것은
손 본다는 것은
해를 보는 것은
남보다 잘산다는 의미는
입어보다는
이야기 들어보자는
눈치보다는
따져 보다는
먹어 보다는
볼 장 다 보았다는 것은
볼 낮이 없는 것은
기회 보는 것은
만들어 본다는 것은

“보다” 를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를 파악하는” 한 가지의 정의로만 알고
잘난 척 타인의 말을 공격하며 무안을 주니
그 몰상식과 오만을 불쌍히 여겨 너그럽게 “보아” 주는 수밖에 없겠다.

<인격은 혼의 무게>

지구 상에서
물체의 질량은 무게로 나타나고
사람의 질량은 인격으로 나타난다

무게도, 인격도 끌림에 근거한다
물체 간의 끌림은 만유인력 때문이고
사람 간의 끌림은 정이라는 사랑 때문이다

만유인력이 없으면 물체에 무게가 없듯이
정이 없는 사람은 인격도 혼도 없다
인격과 정과 혼은 인간 본질의 삼위일체다

<사랑의 묘지>

외롭다 하지 마라
외롭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으며
울음을 삼키는 세대가 어찌 청춘 뿐이라
청춘이 슬픔이라면 봉해 버려라

시간도 쉬어가는
감성의 미로
말발급 겨울이 멀어지면
봄은 고양이 발자국으로 다가온다
영혼의 소리가
도플러 효과로 아스라이 멀어진다

흐린 하늘에
갈대의 연정이 세월 같이 흐르는데
칠혹같은 밤
의식은 검은 비에 흠뻑 젖는다
기다림은 사랑의 묘지
잡초 사이 무덤 위로 제비꽃을 피운다.

<솟아라>

솟아라, 솟아라
높이 솟아라

쳐진 내 마음 실어
솟아라, 솟아라
높이 솟아라, 내 방패연아

너는 하늘의 제왕
솟아라, 솟아라
높이 솟아라, 날개 편 독수리야

너는 구름이 될 신분
솟아라, 솟아라
높이 솟아라, 시원한 분수야

부질없는 먼지 아귀다툼 털고
솟아라, 솟아라
높이 솟아라, 내 의식인 우주야

솟아라, 솟아라
높이 솟아라, 즐거운 노래야
탁 트인 하늘에 올라
신명 나게 춤을 추자 꾸나

솟아라, 솟아라
높이 솟아라, 내 기백아
하늘 높이 올라
넓게 세상을 내려다보자

솟아라, 솟아라
높이 솟아라, 내 영혼아
달까지, 별까지 솟아
높은 기상으로
푸른 창공을 달려가자

세상은
네가 보기 나름이니
항상 낮은 겸손과 드높은 기상
후회와 부끄럼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후렴'이 있는 시.

<多의미 시>-괄호 넣기

(ㄱ, a)

()

()

()

()

()

()

()

()

()

(.....z, | .)

*시작 노트: “자신은 썼으니 깊은 의미의 해석은 독자의 몫” 이라는 분들을 따라
저도 열린 은유의 시를 시도해 봅니다.(ㄱ에서 | 까지, a에서 z까지 골라 잡으세요)

<숫자 단위>

동양과 서양은 위치가 다른 만큼
 숫자 개념이 다르고 십진법 체계도 다르다
 우리는 공을 네 개씩 묶어 묶어 나갔다
 서양은 공을 세 개씩 묶어 단위를 정했다
 그러니 萬서부터는 두 쪽 진영의 단위가 삐걱한다
 공이 셋과 넷의 공배수인 열두 개에 가서야 단위가 만나고
 스물네 개에 가서 또 만난다; 자와 요타
 그 이상의 단위는 무엇일까?
 어디까지 정의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위로만 갈 줄 알았지
 아래 미세 세계의 단위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다
 “분의 일” 이 있지만 고유의 단어가 없는 듯하다
 (이 관점은 내 무식의 소치임을 나중에 알았다.)
 동양은 사물을 크게 보고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나 보다.

공(0)과 무한대(∞)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층계가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만큼 있겠다.

SI 접두어				
10 ⁿ	접두어	기호	배수	십진수
10 ²⁴	요타 (yotta)	Y	자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 ²¹	제타 (zetta)	Z	십해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 ¹⁸	엑사 (exa)	E	백경	1 000 000 000 000 000 000
10 ¹⁵	페타 (peta)	P	천조	1 000 000 000 000 000
10 ¹²	테라 (tera)	T	조	1 000 000 000 000
10 ⁹	기가 (giga)	G	십억	1 000 000 000
10 ⁶	메가 (mega)	M	백만	1 000 000
10 ³	킬로 (kilo)	k	천	1 000
10 ²	헥토 (hecto)	h	백	100
10 ¹	데카 (deca)	da	십	10
10 ⁰			일	1
10 ⁻¹	데시 (deci)	d	십분의 일	0.1
10 ⁻²	센티 (centi)	c	백분의 일	0.01
10 ⁻³	밀리 (milli)	m	천분의 일	0.001
10 ⁻⁶	마이크로 (micro)	μ	백만분의 일	0.000 001
10 ⁻⁹	나노 (nano)	n	십억분의 일	0.000 000 001
10 ⁻¹²	피코 (pico)	p	일조분의 일	0.000 000 000 001
10 ⁻¹⁵	펨토 (femto)	f	천조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1
10 ⁻¹⁸	아토 (atto)	a	백경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1

10 ⁻²¹	zepto (zepto)	z	십해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0 001
10 ⁻²⁴	yocto (yocto)	y	일자분의 일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한자 수 - 위키 백과

- [0 〇, 零](#)
- [1 一, 壹](#)
- [2 二, 貳](#)
- [3 三, 參](#)
- [4 四, 肆](#)
- [5 五, 伍](#)
- [6 六, 陸](#)
- [7 七, 柒, 漆](#)
- [8 八, 捌](#)
- [9 九, 玖](#)
- [10 十, 拾](#)
- [20 廿](#)
- [30 卅](#)
- [40 卌](#)
- [100 百, 佰, 陌](#)
- [1000 千, 阡, 仟](#)
- [1052 恒河沙](#)
- [10000 万, 萬](#)
- [100000000 亿, 億](#)
- [1000000000000 兆](#)
- [10000000000000000 京](#)
- [100000000000000000000 垓](#)
- [100000000000000000000000 秭](#)
- [1000000000000000000000000 穰](#)
- [10000000000000000000000000 溝](#)
- [100000000000000000000000000 澗](#)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 正](#)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載](#)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極](#)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阿僧祇](#)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那由他](#)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不可思議](#)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無量](#)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大數](#)
-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無量大數](#)

* * * * *

한어(漢語) 계통의 수사(數詞)를 가리키는 말로, 한국에서는 一(일), 壹(일), 二(이), 貳(이), 三(삼), 參(삼), 四(사), 五(오), 伍(오), 六(육), 七(칠), 八(팔), 九(구), 十(십), 拾(십), 百(백), 佰(백), 千(천), 仟(천), 阡(천), 萬(만), 万(만), 億(억), 兆(조) 등이 주로 쓰인다.

이밖에 京(경:10¹⁶), 垓(해:10²⁰), 秭(자:10²⁴), 穰(양:10²⁸), 溝(구:10³²), 澗(간:10³⁶), 正(정:10⁴⁰), 載(재:10⁴⁴), 極(극:10⁴⁸), 恒河沙([항하사](#):10⁵²), 阿僧祇([아승기](#):10⁵⁶), 那由他([나유타](#):10⁶⁰), 不可思議(불가사의:10⁶⁴), 無量大數(무량대수:10⁶⁸)가 있다. 항하사(恒河沙)·아승기(阿僧祇)·나유타(那由他)·불가사의(不可思議)·무량대수(無量大數)는 각각 10⁵⁶, 10⁶⁴, 10⁷², 10⁸⁰, 10⁸⁸으로 보는 설도 있다.

소수(小數)의 단위는 한국에서는 10분의 1(10⁻¹)은 할(割), 100분의 1(10⁻²)은 분(分), 1000분의 1(10⁻³)은 리(厘), 10000분의 1(10⁻⁴)은 모(毛)로 표기하지만, 중국에서는 각각 分(푼:10⁻¹), 厘(리:10⁻²), 毛(모:10⁻³), 絲(사:10⁻⁴)로 표기한다. [소수점](#) 5자리 이하로는 忽(홀:10⁻⁵), 微(미:10⁻⁶), 纖(섬:10⁻⁷), 沙(사:10⁻⁸), 塵(진:10⁻⁹), 埃(애:10⁻¹⁰), 渺(묘:10⁻¹¹), 漠(막:10⁻¹²), 模糊(모호:10⁻¹³), 逡巡(준순:10⁻¹⁴), 須臾(수유:10⁻¹⁵), 瞬息(순식:10⁻¹⁶), 彈指(탄지:10⁻¹⁷), 刹那(찰나:10⁻¹⁸), 六德(육덕:10⁻¹⁹), 虛空(허공:10⁻²⁰), 淸淨(청정:10⁻²¹)으로 표기하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출처] [한자숫자 \[漢字數字\]](#) | 네이버 백과사전

<거시기 산수>

여자는
남자보다 딱 10이 모자란다

우리끼리의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111은 사실 좀 멍청해 보이고
연약한 듯한 101은 실은 속이 강하다
그래도 111은 대견하게
자기의 101을 책임지려는 마음은 있는 듯하다
(딱 데 정신 팔며 그렇지 않은 놈들도 있지만, 이런 놈들의 배짱이 부럽다.)

둘을 합치면 212
오리 두 마리가 새끼를 가운데 끼고 돈다
둘을 곱하면 11211, 새끼들이 양쪽으로 곱이다
남자를 여자들이 나누면 1.0990, 일이 넘치는데
여자를 남자들이 나누면 0.9099, 일이 안된다
(산수에 자신이 없으면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라.)

남자에게서 여자를 빼 보면
거시기의 무게가 나오는데
그 무게는 전체의 약 10%인 10이다
그놈의 10%가 그 잘난 111의 자존심을 좌우하나 보다
거추장스러운 그 가운데 작대기 때문에 신세 조진 111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놈이 한 번 불끈하고 성이 나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
0(-)이 잘 달래 품고 쓰다듬어 주면
눈물 한번 찔끔 짜고는
순하디 순한 羊(+)이 되니 101이 한 수 위다.

*註: (+와 -의 차이도 역시 작대기 하나다.)

<민적 우르릉 광>

~~~~~ + ~~~~~~  
^ ~ ~ ^ ~ ~ ^ ^ ^ ^  
깊  
하  
늘 이  
번 째 하 -  
고  
갈 라 지  
--  
더 니 천 등  
소 리  
또 한  
요 란 하 구 나.  
?  
! " " " " "

<해 질 녘>

바람이 울고 가는  
여울의 길목에는  
그리움이 서성이고 있다

별이 한낮 오수에 든 후  
빠가 시리게 빠걱거리는 땅거미  
바람따라 그리움에 눈물 짓는다

색깔만 있고 윤곽선이 부재한 그림은  
순수하여 뚝 없는 강같이  
조용한 물감으로 번지고  
아픔은 외로움따라 대지에 색칠하며  
소용돌이 향기로 화필을 긋는다

붉은 평화가 찬란하게 즐고 있는 저물녘  
이유 없이 콧등 시큰거리는 하루의 순간이다.

\* 추상화 시험시

### <작은 별-2, 루시의 환상>

하늘 파도 가르며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이 흐르다  
금강석 촘촘히 박힌 검고 깊은 공간  
320 만 년 전 조상 왜소한 검은 여인 루시의 초롱초롱한 눈빛  
루시는 비틀즈의 노래로 엮어진 LSD 를 타고  
은하수 건너 하늘나라 고향 다이아몬드 별 BPM 37093 루시로 향해

몸은 나른하고 칼날이 골수를 시원히 가르다  
뱀의 비늘과 혀 밑으로 구십 구개의 문어 발이 붉은색 춤을 추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이 나비가 되어 돌고  
무지개 모든 색깔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싸이키델릭(psychedelic)  
배설의 쾌감이 몸을 관통하고, 먹지 않은 포만감에 나른하다  
팔을 뻗쳐 별을 잡다. 별은 빛의 그림자, 아무것도 없다

나, 루시는 하체 없는 거미가 되어 잊혀진 중력장 줄에 달려 있다  
귀가 먹먹하고 살과 뼈가 분해되어 산산이 흩어져 소멸이다  
우주 태초의 수정란이 되어 우주 깊은 자궁으로 빨려 들어가다  
눈부시게 밝은 빛 조각이 그 블랙홀에서 폭발되어 나오다

도가 옆 모습을 살짝 보이다  
스티븐 호킹의\* 말대로, 흑세가 말하는 神은 보지 못하다  
그러나, 우주의 오묘함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신을 느끼다.

註: #8659 <작은 별>과 연관된 루시의 환영입니다. 9/22/10(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올려야 하는데,  
#8659 <작은 별>과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루 일찍 올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신, 다음 습작은 4일 기다린 후에나 올리겠습니다.

\* : 불구자이지만, 저명한 영국의 세계적 '우주 물리학자'.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비틀즈의 노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8XnMMiDUqi4>

**<불협화음 교향곡>**

달도 없는 밤  
먹물 머금은 공기 중에  
슬픔이 배어 있구나  
박쥐가 허공에 일으킨 파도 따라  
외로움이 포복 전진 중이다.

거미줄에 매달린  
내 삶의 무게는  
몇 그램이나 될까?  
블랙 위도 거미가 언제  
나의 진액을 빨아 먹으러 올까?  
광야에는 승냥이가 무리지어 있고  
따리 튼 아나콘다는  
악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밤의 숲은 생사의 역사를 진행 중이다.

흑사의 눈은 백내장  
하얀 불 투명체였다.  
검은 꼬리를 단 바람의 춤  
이 밤, 어느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죽는다  
그래야 누군가가 산다.

오늘도 생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현재 이 순간에도  
언젠가 골통이 깨져 죽을  
많은 살덩이들은  
세상모르고 교미 중이다.

해는  
임무교대로  
어둠의 세력에게 세상을 맡기고  
슬그머니 지평선 너머 땅굴 속으로  
자리를 피해 준 지가 오래다  
지금, 밤의 불협화음 교향곡은  
제 3 악장 클라이맥스다.

<수족>

전면투명유리벽저쪽밖고개곶한전시실의바른편전시대에는수백개의바른손이진열돼있고왼편진열장에는또수백개의왼손이정돈되어있는데잃어버린내손을바로찾으면팔목에끼워주고만약틀린손을찾으면영영손없이살아야한다니이런난감할데가?한손도어떻게생겼던지가물가물기억이안나는데양쪽을다바로찾아야한다니평생같이살아온손의생김새를기억해내려고안간힘을쓰며정신을가다듬어보았지만진땀만나공공앞으며엎치락뒤치락하다가다행히잠이깨어얼른어둠속에서손을만져보니양쪽다있어안도의숨을내쉬며침대에서살짝빠져나와더듬더듬화장실문을찾아조용히열고들어가또소리내지않으려고천천히문을닫고는스위치찾아불을켜보니정말두손이다붙어있어안심하고이참에생김새를잘기억해두려고뚫어지게쳐다보았더니두손이부끄러운지슬그머니등뒤로숨어버리기에살살달래앞으로나오게한다음거울에도비춰보고옆으로위에서손등손뺨줄손가락손톱손마디손목왼쪽바른쪽손바닥뒤집어손금도이모저모를유심히관찰하고나서는내친김에두발도발등발뺨발줄발가락발톱발뒤꿈치복사뼈발바닥발금도손거울에비춰까지보며오래오래눈사진을찍고나서는이제부터라도고맙고귀한내수족에게무심하지말고잘보살피고건사해야겠다고(누구말마따나우리가어디남이가?)다짐하며착잡한생각에숨을고르고있는데……

“아띠, 한밤중에 거기서 무얼 해요?”

화장실 나오며,

“아니, 소변.”

“웬 소변을 그리 오래? 플러시도 안 하고 나와요?”

“아?”

다시 화장실로 빠꾸변기실까지가서드르륵문열고안으로 들어가애꿎은물통버튼을콕눌러주었더니썩아악…

….

### <삼각형 설법>

책상위 삼각자의 投體 설법을 눈으로 듣고 있다.

- 삼각형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길다.  
과반수는 존중되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어 독재해서는 안 된다.

- 세 각을 합치면 180 도.  
모두가 힘을 합치면 여러 가지 일을 평탄하게 할 수 있다.

- 모가 기초가 되면 불안정하지만, 변이 기초가 되면 안정된다.  
뾰족하지 않고 폭넓게 살면 안정되고 순탄하다.

- 꼭지각(머리 각)이 클수록 저변이 길고 더욱 안정된 자세다.  
머리가 클수록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 군자의 무게가 있다.

- 크고 좋은 삼각자는 투명하다.  
대인은 언행이 투명하다.  
속을 감추는 인간은 이중인격 저질 소인배다.

- 주어진 전체 길이에서 세 변이 같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이 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평등한 사회가 가장 넓고 행복한 사회다.

- 세 변이 다 곧고 바르다.  
곧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 하면 바른 사회가 된다.

오는 신정에는 나라의 높은 분들에게  
삼각형 설법을 선물로 진상할 생각이다.  
투명한 빨락종이 오린 정삼각형을  
버블 패드 봉투에 소중히 담아 등기우편으로…….

### <사계 분석>

사계는 칠색 무지개일 뿐이고  
12계는 시간  
계절은 변화무상하다.

색깔에  
연보라, 보라, 진보라가 있듯이  
계절에도  
초봄, 봄, 늦봄이 있다  
그래서 12계절이 된다  
12계절은 12달로 대표되며  
12간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근본을 따져보면  
색깔에 삼원색이 있듯이  
계절에는 이원계가 있다.

달에 연계하여  
1월계는 겨울  
7월계는 여름  
그 두 계절 사이에  
여자의 마음이 있다.

<角形은 계놈, 圓은 우주>

点은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다.  
고로, 点은 空角形.

一각형은 無각형  
二각형은 제로 각의 線각형  
三각형은 날카로운 형태  
四각형은 딱딱함의 모습  
五각형은 정의의 상징  
六각형은 가치의 기준  
七, 八, 九각형이 될수록  
원에 가까워지며 덕스러워 보인다.  
圓은 無限角形. 완성의 상징이다.

세상의 모든 형태와 모습은  
点부터 圓까지에 이르는  
여러 기본도형 계놈의 집합이다.

빈 존재인 중심点 자아와  
무한 각인 圓주 우주 테두리 사이에  
각종 형태의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  
어떤 형태든 분석해 보면  
미분된 각형들의 적분이기 때문이다.



**<승화>-퇴적층 화석 "시와 해설"**

물고기는  
이제,

바위 속을  
헤엄치며

영원히  
살아 있구나!

\*\*\*

**해설:**

어느날, 한 물고기 알은 부화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남들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수초 속을 숨어다니며 커갔습니다. 몸집이 커지며 초기의 위험한 고비는 무사히 넘겼지만,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 먹이를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을 남기기 위하여 알도 낳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생존을 위한 처절한 행동이며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죽어 뺨에 깔리고, 몇만 년이 지나 화석으로 승화했습니다.

이제, 생존의 수고를 다 벗어 버린 물고기는 바위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헤엄치며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먹히지도 않고 먹이를 찾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려는 생존의 꿈을 이제야 이루었구나!

“이제,”가 이 시의 詩眼이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은유와 함축을 시도한 것입니다.  
앞의 많은 이야기를 이 한마디에 담은 것이지요. (‘이제’ 다음에 “,”을 달아 잠시 끊고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숨겨진 뜻이 있다는 암시.)  
나아가서 인간의 안간임을 비유, 상징한 것입니다.

물고기 = 나 (화자, 청자) = 인간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과 삶의 부질없는 고뇌를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다른 형태로 ‘영원한 삶’ 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죽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가능성....  
(시는 작가가 생각한 이상의 상상의 세계를 열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ㅎㅎ.)

<산들의 대화> "선사"

백두 山仙이 한라 山仙에게  
낮은 주파수로 교신하는 대화를  
네 팔과 티베트 국경 쪽  
덩치 큰 에베레스트 山仙이 들었다.

요즈음은 귀찮게스리  
웬 게 이리도 많은  
하루살이들이 꼬이는고?

한라 산선이 대답하기를  
내게는 희다고 생각하는  
하루살이들이 때로 기어올라 골치네.  
자네에게 붙은 것들은  
붉은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이구먼.

에베레스트 山仙이 거든다.  
내 버려두게나  
어차피 하루면 죽을 하루살이들 아닌가?  
내게도 각종 하루살이들이  
매일 달라붙는다네.

건넛집에 사는 화성 山仙이  
에어컨 온도를 확 낮추니까  
하루살이가  
날아들지 않더라고 귀땀해 준다.

**<심표-2>**

사람은 문장부호다.

'!'는 매정한 사람  
'!'는 피 뜨거운 감성 파  
'?'는 매사 남의 일에 관심 가지는 사람  
'.....'는 애매모호 파

:'나 ':'는 권위주의자  
'()'는 같은 말 되풀이 하는 수다쟁이  
""는 자기주장이 없는 우유부단 파  
';'는 쉬엄쉬엄 편안한 친구

그래서,  
나는 ';'이 좋다.  
이왕이면 나도  
이웃에게 ';'이면 좋겠다.

한편,  
사회라는 문장에는  
여러 요소가 각자 역할을 다할 뿐이니  
자신만 옳다고 우길 일도 아닌 듯싶다.

**<실험표-1>**

사람은 문장부호다.

'!'는 매정한 사람  
'!'는 피 뜨거운 감성 파  
'?'는 매사 남의 일에 관심 가지는 사람  
'.....'는 애매모호 파

';'나 ':'는 권위주의자  
'()'는 같은 말 되풀이 하는 수다쟁이  
'"'는 자기주장이 없는 우유부단 파  
';'는 쉬엄쉬엄 편안한 친구

그래서,  
나는 ';'이 좋다.

<찐 고구마 두 개>

십리 길 학교에 다녀 와서  
책보를 툇마루에 던지는 오누이,  
“야. 고구마다! 엄마 꺾?”

양말 꺾매던 엄마의 힘 없는 대꾸,  
“아. 난 아까 먹었다.  
니들이나 어서 먹으렴.”

### <한국 경제 살리기>

경제가 어려운 현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는  
학문적인 연구를 통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들의 희생과 과감한 실천이 요구된다는  
엄연한 사실에는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로는  
미니스커트와 배꼽티가  
현대문명과 경제개발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이다.  
치맛단이 올라갈수록 경제도 올라간다.  
숨김없는 노출이 시장 경제다.

차분히 생각해 보자.  
치맛단이 길고 배꼽티가 없었던  
옛날에는 경제가 안 좋았다.  
먹고살기가 어려웠다.

치맛단이 짧아진 근대에 와서는  
그나마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나?  
보릿고개가 없어지지 않았나?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결과가 보여 주는데…….

혹자는  
한국의 근대 경제개발을  
구로 메가네 쓴 한 군인에게 돌리지만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발랄한 젊은 현대 여성들에게  
그 공적을 돌려야 한다는 데에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조국의 젊은 여성들이여!  
경제 회복과 애국하는 마음으로  
미니스커트, 초미니스커트, 배꼽티를  
일년내내, 추운 겨울에도 착용해 주기 바란다.  
애국이 따로 없다.  
경제회복의 대업을 향해, 나라를 위해  
조금만 더 희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젊은 여성들이여,  
바지는 벗어 던지고 스커트를 입어라.  
경제 회복을 위해 치맛단을 조금만 더 올려라.  
우리는 꿈이 있다.  
해 낼 수 있다!  
애국자인 그대들의 초미니, 배꼽티 만세!

### <157 번 버스 정류장 앞 지하도 입구>

햇볕이 썩어 문들어지며 진물을 흘리는 도심의 가로수 아래는 쓰레기 통 향기만이 살아있어 싱그럽다.

얼굴에는 온통 사마귀가 촘촘히 돋아 사마귀 암으로 죽은 도시의 몸체에는 벌레들이 파 놓은 땀 구멍이 많다.

지하철 역이라는 땀 구멍으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벌레들, 또 기어들어가는 벌레들이 부지런하다.

도시는 벌레에 먹히며 텅텅 부어가고 있다.

한여름 장마철에 공기도 썩어 냄새가 현대 교향곡이다. 가을이 되면 미이리가 될 것이다.

벌레들은 내일이 없다는 듯 송장을 파먹는다. 썩은 몸체 먹고사는 벌레들, 벌레들...

땅속에서는 붉은 악마가 언제고 몸서리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장난감들이 우수수 평준화될 것이다.

영혼은 벌레가 무서워 가로수를 타고 오른다. 찡그린 달은 코를 쥐고 결눈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죽은 도시에는 송장 우는소리만 자장가로 혹은 진혼곡으로 요란하고 나비는 공룡이 된다.

거짓말 같지만 지렁이는 모조리 모조리 짓밟아 뭉개 버려야지 그제야 세계 평화가 온다.

<조상 나이> “선시-2”

세상이 좋아져  
백수(白壽) 이상 사는  
장수 노인 수가 늘어난다는  
세상 떠드는 소리를 듣고

삼각 山仙이 웃으며  
자기 나이는 이제 겨우  
십 억년 정도라고.

자기 전에 地球仙이 출산되었고  
오십억년 전에는 太陽仙이 태어났으며  
宇宙仙의 나이는 백 삼십육억 년 정도라고.

그전의 조상은  
족보가 분실되어  
자기도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

**\* 입체 실험시 \***

**<소금쟁이>**

미끄러지듯 흐르는 잔잔한 물웅덩이  
소금쟁이 한 마리 파문을 그린다.

조그만 동그라미 수없이 퍼져가다  
풀잎에 닿기 전 흔적없이 사라진다.

물 위를 걷는 긴 다리 아저씨  
그 작은 머리로 놀라운 기적을?

세월의 흐름 위에 초연히 뜰 수 있는  
불가능을 꿈꾸는 외톨이 괴짜.  
소금쟁이처럼  
소금쟁이같이…….

-----  
**<소금쟁이 상대성 원리>**

소금쟁이는  
일반 상대성 원리를  
몇백만 년 전부터  
그의 발밑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긴 다리의 발바닥 물 표면이  
표면장력으로 휘듯이  
물체 주위에서 시공간이  
움푹 패어 곡률로 휘다는 것

과학적 진리를 보여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눈뜬장님들  
한 천재가 불과 구십 년 전에야  
겨우 찾아낸 과학적 이론.

누가 과연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나?

\*\* 시작노트: 같은 사물을 다른 두 관점에서 본 쌍으로 읽는 실험시입니다.  
두 시가 한편인 '짝 시'입니다.  
같은 결론을 두 눈으로 보는 "입체"적 효과를 시도한다고나 할까요?  
왼쪽 감성 눈과 바른쪽 이성 눈. - 아직은 아이디어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난해성"으로 "따분한" 단조로움을 탈피하려는 시도보다는 새로운 형식으로  
다양성과 시 구장을 넓힐 수 있을까 해서요.

### <때가 온다>

걸 때 깔만 좋은 금배지야!  
지금 이 어느 때라고  
때때로나 열리는 국회에서  
때거리로 동료들 때리고 기물을 부수어  
여의도에 때를 묻히고 야단들이냐?

정신 차리고 때맞추어 절간에나 가서  
그 깡패 때를 벗어 버리고  
마음에 낀 욕심의 때도  
말끔히 씻어 버릴 때인 것을 알도록 해라.  
안하무인이다가 덜컥 때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근신할 때이니라.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올지니  
그때는 온 국민이  
때때웃에 때가 절은 돼지들은  
때\*에 무더기로 쳐넣고  
사정없이 때려잡을 것이로다.

제발 발톱의 때만도 못 하게 굴지 말아라.

\*: 교도소의 속어  
때가다 = 잡혀가다.

### <호수는 밤에 운다.>

호수는 연체동물이지만 겨울이 되면 단단한 뼈로 거죽을 쓴다.  
움츠린 거북이 갑골 동물이 된다. 여름내 잡아먹었던 갈매기, 오리, 블루 헤론, 펠리컨,  
그리고 바람과 물결과 구름, 천둥, 번개도 속으로 더 깊게 끌어들여 반추한 후 먹이를  
물고기에게 준다. 호수는 작년 봄에 받은 산의 씨를 품고 겨우내 임신하고 있다가 봄에  
가서야 숨털 뽕송한 산을 해산한다.

호수도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어 밤이 되면 홀로 눈물을 삼킨다. 그 울음소리가 가끔 짹짹  
얼음 갈라지는 소리로 들린다. 호수는 날고 싶다. 언젠가는 인형의 집을 벗어나 남들 처럼  
자유의 꿈을 펼칠 날이 있으리라.

선인장에 물을 주다 찢린 가시에 손끝이 아프다. 처음에는 가시 때문인지도 모른다.  
돋보기를 들이대고 찾으면 조그마한 점이 보여 바늘 끝으로 빼낸다. 보이지도 않는 놈이  
자기를 생각해 준 덩치를 괴롭힌다. 주제 모르는 폰수는 교향곡의 가시음일 수도 있다.

누가 더 모를 소리를 하느냐는 치열한 경쟁이다. 연결 고리가 끊어진 기상천외의 상상력이  
시와 평론에 적용된다. 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코로 진흙 물 삼킨 호수는 아무도 모르게  
밤새 홀로 서러운 울음을 토해낸다. 술바람 옆 모습이 동정 한 앞을 슬그머니 던져주고 간다.

\* 시작노트: 한 동안 신춘문예들을 읽고 난 후, 반 발짝 다가가 봅니다.  
이런 분산된 상상과 고전 시론을 거부하는 글이 과연 감동 성이 있느냐가 문제겠지만요.

**<철학이 공통 알을 까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겨  
합치면 방전되고 소멸한다.  
반짝 불꽃을 내고는 끝이다.  
소멸하려고 서로 끌어당기는 것인가?  
합치는 목적이 소멸인가?

여자와 남자가 서로 끌리는 이유도 그런가?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정열을 불사른다.  
합쳐서 소멸의 환희를 맛본다.

알칼리와 산이 합치면 중성.  
1 과 1이 합치면 2, 혹은 그대로 1(on).  
물과 불이 합치면 수증기? 꺼진 불?  
술과 친구가 합치면 술친구? 늦은 귀가?

겨울과 여름이 합치면 봄?  
여름과 겨울이 합치면 가을?  
음과 양이 합치면 무엇일까? 천지? 무?

합친 결과가 무얼 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다.  
철학은  
철 난간 위에 앉은 학?  
또는 철로 만든 학?  
별 볼일 없는 철학 공상이  
공통 알을 낳는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부화할 수도 있겠지.

### <장마 타는 회사원>

젠장, 누가 죽었나 보다.  
하늘이 찢지게 운다.  
침침하게 구성진 노래가 계속 내리고 있고  
끈적거리는 네온 주황색이 길에 드러누워 있다.  
도시는 늘어선 교회의 십자가로 거듭날 것이다.  
너희들아, 씻긴 거리에서 잘 살아 보아라.

출퇴근 뱀 구멍으로 기어들어가면  
기분 좋게 가을이 열려 있다. 뱀 굴에서 나오는 길  
아줌마, 아저씨 공동이만 쳐다보며 층계를 오른다.  
도시 오케스트라의 고향은 현대 불협화음  
오늘이 알을 싸고 내일을 날려 버린다.  
구운 오징어처럼 오그라들었던 오늘  
기분도 그러니 소주와나 맞짱떠보자.

웬수 친구놈들보다는 포장마차 주모가 만만하다.  
가끔의 발작은 정상. 발작에는 술이 약이다.  
오늘, 어떤 재수 좋은 놈이 나한테 걸려  
육지거리의 애정 표현을 선물로 받을 거다.  
오늘 하루도 짬 쩌 먹었으니  
내일은 내일 구워먹기로 하자.  
짜증이라는 간헐적 삶의 환희에  
이 저녁이 저주스럽게 기분이 짱이다.

\* 시작 노트: "젊은 시"를 조금 훑내 내 보았습니다.  
지하도에는 장마가 가셨고, 줄지어 계단을 나오면 도시의 소음.

### <詩 정지 추상화>

꿈속에서 꿈을 꾸다.  
따라가다 보니 금성이 가로막는다.  
빛 잃은 그림자는 보조, 찌개용 두부는 사실이다.  
관념어는 썩은 생선, 상투어는 구정물, 긴장은 간장.  
시가 술에 익는다. 술 단지 뚜껑을 열다가 코가 창에 찢린다.  
정지문 틈으로 겨울 화살이 날아든다. 다리에 맞아 달달 떠다.  
소유증명서를 어디에 두었더라? 파랑새는 손가락 틈을 빠져나가는 모래알,  
파랑새를 날려 보내라. 아궁이 용 검불 더미가 자꾸 낮아진다. 등잔을 밝힌다.  
뜯 구들장이 차지고 곰팡이가 슬겠다. 혼돈은 열역학 제 2 법칙에 의해 정돈된 질서.  
동행하는 어둠이 편하다. 그래도 불안하면 파도에 닿은 매끈한 조개껍질 조각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만지작거리라. 기쁘면 소나무에 대고 소피해라. 화나면 두 팔을 하늘로 뻗치고  
“오 쓸레 미오” 를 목청껏 불러라. 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정신과 영혼은 자동적으로 즐레즐레  
따라오게 마련이다. 자유다. 해방이다. 가끔 발작은 건강을 위해 필요. 신진대사, 배설하듯이…….  
어차피 중요하다는 모든 것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더냐? 모든 게空인데, 뭘?

\* 시작 노트: 두 배로 환불해 주어야 할 습작이지요?

### <바람이 흩날리고 간 연인들의 전설>

속살 내보이는 매화의 유혹에  
언 땅을 뚫고 올라온 봄의 발기  
봄은 치마폭 안에서 아우성이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흐르는 강물  
강변은 비린내 나는 풀들의 전쟁터다.

곧이어 땀내나는 여름 무대가 열리며  
폭염속에 뒤틀린 천지가 흥건하다.  
장마 비바람은 천둥 번개를 몰고 와  
쌓인 욕망을 시원하게 씻기고  
수챗구멍으로 흙탕물이 흘러나가면  
깨끗해진 가을 하늘은 한없이 빈다.

요란한 색깔의 절정 후 이별이 끝나면  
빛 보지 못할 많은 씨들이 맺어지고  
이제 서로 담배 한대 물 때  
겨울 쇠소리가 산천을 표백한다.  
무쇠 겨울은 모든 것 지우며 침묵한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또 한 해가 슬그머니 침몰한다.

**<살만 하나요?>**

어디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지요?  
비가 오려나 봅니다.  
어쩌다 예까지 왔나요?  
길거리 강릉이나 차 봅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노랑나비가 날아가네요.  
왜 사시나요?  
물안개 냄새가 신선하지요?  
살만 하세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저 그냥요.

**<떠난 간 후>**

꽃잎, 낙하,  
붉은장미, 가시,  
심장, 핏방울,  
그대, 지평선,  
먼하늘, 기차길,  
바람, 구름,  
버림, 망각,  
죽음, 슬픔.

**<안단테> “실험 시”**

뽕튀기, 봉어빵, 과배기  
꿀라, 번데기, 오마께  
해태카라멜, 구슬, 딱지  
왕자표고무신, 까만운동화  
약수터, 송사리, 포충망,  
다라이양푼, 우물, 펌프  
팔각성냥, 무쇠솥, 참기름뿔병  
남포, 럭키치분, 대나무칫솔  
손재봉틀, 풍금, 치자, 파리  
(포근한 시절아.)  
안단테, 안단테…….

\* 철자법 점검도 없이 떠오르는 생단어만의 나열로 이미지를 조성해 보는 실험.

<형식과 내용>

음과 양  
선과 악  
입자와 파동  
운동량과 위치  
너와 나

한 극에 치우치면  
다른 면을 알 수 없다.  
세상 사물이 불확정  
공간이 시간을 관통하고  
시간이 공간을 관통한다.

음의 씨줄과  
양의 날줄로 엮어진 세상.

확률적 조화에서  
양면성을 설명하지만  
모든 이론과 주장도  
불완전한 의식의 소산  
한쪽밖에는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사랑 방정식> "실험 시"**

**배경:**

- > 사랑이 무엇이더냐?
- > 생물학적으로 볼 때
- > 인간에 의해 미화 착각된
- > 생식 본능이 아니더냐?
- >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연인들은
- > 그 '영원'이 2년 안에 끝날 생리학적
- > 홀몬 작용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서론:**

- > 인간 사회에서 사랑이 없었다면
- > 문학과 예술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 >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 > 사랑의 본질을 수학적으로 풀어 보자.

**본론:**

- > 1. 남녀(혹은 여남)가 만나면 사랑하게 된다.  
> 남 + 여 = 여 + 남 = 사랑 ----- eq. (1)
- > 2. 사랑은 시간과 돈 많이 든다.  
> 사랑 = 시간 x 돈 ----- eq. (2)
- > 3. 시간은 돈이다. 고로, eq (2)을 다시 정리하면  
> 사랑 = 돈 x 돈 = 돈<sup>2</sup> (=제곱)----- eq. (3)
- > 4. 돈은 악의 뿌리(루트 = √)다.  
> 돈 = √(악) ----- eq. (4)
- > 5. 증오는 악이다.  
> 증오 = 악, 그러므로 eq. (4) 에 대입하면,  
> 돈 = √(증오) ----- eq. (5)
- > 6. Eq. (5) 를 eq. (3) 에 대입,  
> 사랑 = 돈<sup>2</sup> = (√(증오))<sup>2</sup> = 증오 ----- eq. (6)
- > 7. Eq. (6) 를 eq. (1) 에 대입해 보면,  
> 여 + 남 = 증오 ----- eq. (7)

**결론:**

- > 고로, 남녀가 만나면
- > 사랑으로 시작해서 증오로 끝난다.
- > 과연 사랑과 증오는
- > 같은 동전의 앞 뒷면인가?
- > 사랑도 모든 세상사같이
- > 항상 변하게 마련인가?

### <또 하나의 하루>

어두움은 저녁이라는 물에 젖은 솜덩이이다.

정크 메일은 언제나 같이 겹겹이 싸여 있는 높은 콘크리트 우편함 구멍으로 기어든다. 다른 정크메일들이 이미 들어 있다. 정크 메일끼리 서로 불을 맞대고 비빈다. 저녁이라는 것을 봉투에 쓸어 넣은 후 바보상자 앞에 모여 있다가 각자 석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석관에 누우면 각 조인트가 느슨히 풀리고 뼈들이 분해되고 떼구르 굴러 흩어져, 텐션이 풀리고, 달과 별들은 신음 소리를 낸다. 석관의 뚜껑이 닫히고 빛이 차단되면 의식은 낯은 로봇을 이탈해 사다리를 타고 허공을 오른다.

내 집이 아래 내려다보인다. 바닷가 검은 바위 절벽에 붙어 있는 밤 경치가 좋은 맨션이다. 집 창문으로 날아들어 가 창턱에서 낚시를 드리워 큰 괴물 고기를 낚는다. 여러 마리를 낚는다. 출렁이는 바다는 창 문턱 아래까지 검푸르다. 다시 하늘을 날지만 길을 잃어 안타깝다. 갈 곳을 모르겠다. 밤하늘을 방향하다 갑자기 내일이 시험이라는 생각이 난다. 공부는 물론 과목이 무엇이고 교과서가 무엇지도 모르겠다.

검정색이 점차 바래 희미해지더니 새 소리가 보이기 시작하며, 여정은 끝나고 다시 석관에 흩어진 뼈들로 돌아온다. 뼈의 조인트에 기름이 쳐지고 크고 작은 장기 주머니들이 달리고 곁에 가죽이 씩워진다. 배터리를 충전한다. 개솔린을 채우고 실탄을 확인한다. 총대를 찾아 메고는 콘크리트 우편함을 나선다. 오늘도 전쟁이다. 무엇이 승리인지 모르는 허수아비들의 전쟁이다. 오늘은 과연 어떤 전투가 벌어질까? 어차피 죽지는 않을 전투니 요령껏 잘 피해 다니기만 하면 하루의 전공이 낯은 훈장같이 쌓여진다.

### <현대 과학 시>“실험 시”

한 곡면의 극한치를 구하면 평면이 되고 임의의 시간이 그 평면과 교차한다 교차점에서 수직 상승 아이겐 벡터는 우주 공간의 비틀려진 곡면이다 원자로의 액체가 확산되는 시간  $t$  동안 기체는 침전되어 원심 분리기에 의해 블랙홀의 질량  $m$  원소로 추출된다 시간이 가속도를 가지고 입자와 빛의 평균속도로 직선과 충돌한다 반발계수는 미적분의 상수로 남는다 사이클로트론의 소장과 십이지장은 파형이 사이노 소이달인 입자군 이 가설을 필요조건으로 설정하면 확률에 의해 충분조건이 성립한다 질량에 에너지로 변환되는 함수 동안 엔트로피는 등온 가역 반응을 보인다 이런 원리에 의해 우주는 서서히 빅뱅 이전의 시스템으로 귀납하게 된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연역적 폐쇄 반응이다 상대성 이론은 뉴턴 사과의 시초다 종말이 시작되는 무한궤도의 순환사이클은 기존 운동량을 유지한다 모든 이론이 나선형 성운을 거쳐 블랙홀에 수렴된다 모든 시작은 끝을 대치한다 고로 가설은 철저한 증명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세계는 필연적으로 모래 속에 존재하게 된다.

**<音詩> "실험 시"**

서론:

현대시는 자연이나 감상주의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표현하고, 낯설게 하고, 평범한 논리를 벗어난 상상의 세계를 제시하며, 운율에 개의치 않는다. 구체성을 모색하고 색다른 형식을 추구한다.

이러한 현대시 정신에 근거하여 ‘음시’ 를 시도해 본다.

어차피 뜻을 이해 못 할 바에야 울리는 기분이라도 산뜻해야지? 그래서 운율은 유지한다.

**<자식 소원 기도>**

짱꾸니 금세야  
상고레 부릉규  
웁가리 너모수  
아이고 오시오

빠드령 할매요  
달모리 불구레  
손하나 주이소  
하늘님 부처님

<도덕경 따라 살기> "실험 시"  
 "풀어쓰기-파자 시"

사노나모트사트포사토 | 사기 | 르르노  
 드나르니 | 모오-노오너노저네내르켜오노  
 츳트모오-르츳트모켜흥-르르거쓰기 | 르르해  
 츳나르나노흥나노모트르기 | 르나모기켜쓰나  
 모케모라르나쓰드너노모오-모오 | 르르나  
 기-오-노기켜르오에저거가사 | 르르너라

오노 | 르노오트노 | 르사나드나노-노기  
 오너르켜버가노드노흥너모트흥나노  
 오트사기노오 | 쓰노-노오너르거트르드트 | 오  
 오트르가노오 | 쓰노-노모나오-모오 | 쓰노  
 오-노버 | 츳모트르기켜르자오켜나노 | 오  
 오 | 르흥오너버너르 | 노나노-르츳나노

<흥해사거르>

흥나노-르흥켜노오 | 노노노저나사거나노해  
 모트오트 | 르노사거사나르르나흥나노  
 사나르나모 | 드가노사나르드나가나노-노  
 사 | 르모나오흥나기 | 사 | 버사나오오 | 르노  
 자나오켜노또나르나츳트모오-르츳트모  
 오 | 흥나노사노사나노사나노노노노노노

###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여  
결국 없어지게 된다는 진화설에 따라  
외부 일반 의사들은  
신체를 든든히 하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란다  
근육도, 뼈도  
심장과 폐를 포함한 신체 모든 기관  
힘들 정도로 운동을 시켜야 한단다

간을 운동시키기 위해  
술을 마시는데  
가정에 상주하는 여의사는  
간이 상한다고 못 마시게 하니  
어떻게 운동시켜야 하나?  
간의 활동과 건강을 위해  
약주 이외에는 딱히  
다른 방도가 생각나지 않으니  
도저히 끊을 수 없을 듯하다  
간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독약을 먹는다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 <맛의 쾌락>

이제는 먹는다는 것이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혀와 코를 즐겁게 하는 쾌락

고생대 철갑상어 알 벨루가 캐비아 (Beluga Caviar)  
간뎡이 부은 거위의 간 푸아그라(Foie Gras)  
땅속에 묻힌 돌맹이같이 못생긴 트뤼플 버섯(Truffle, 송로버섯)  
세계의 삼대 미식이란다  
무엇이 삼대 미식을 결정할까?  
흔하지 않아 비싼 가격일까?

거위를 묶어 두고 강제로 먹여  
간을 크게 키우며  
돈이 되니 철갑상어를 남획  
멸종 위기까지 가게 하고  
송로버섯은 인공재배가 안 되니  
돼지와 개를 동원 야생에서 어렵게 채취  
인간의 쾌락을 향한 탐욕은  
정말 끝이 없구나!

저녁상에  
東의 구수한 된장찌개와  
西의 향기로운 적포도주  
그러면 비싸지도 않게  
동서를 아우르는  
세계의 맛을 다 보는 것 아니겠는가?

## <모자>

머리 꼭대기에  
가부좌 틀고 올라앉아  
세상구경 공짜로 하는  
건방진 양반놈

하! 나는 미천한  
가마꾼에 지나지 않았구나!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어  
식당에서 벗어 걸지 않고  
의자에 깔고 앉아 식사했다

가깝더라도 가끔은  
누가 보스인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바깥 태양 아래는  
인간들이  
분주히 제 갈 길 가고 있었다  
우주는 둥글까?  
각진 큐브일까?

### <대박 시집>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집이 안 팔린다는 요즘  
“월” 형제들의 최신 시집이  
도서 출판계의 화제다  
시집이 팔리지 않아  
시집 코너가 줄어드는 판에  
이 공동 시집은 불티가 난다

그도 그럴 수밖에  
독자들이  
시인을 보고 시집을 사나 보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간판스타들이 좋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알고 보니  
그 시집의 세 공동 저자가  
하!  
시 같이 운율도 걸맞는  
호월, 목월, 소월이 아닌가....

### <구세대 프로세서>

8086 이 판칠 때도 있었다  
286 이 뽀짝했고  
386 을 거쳐 486  
얼마 전에는 펜티엄과 셀러론 시대  
최근에는 제온을 지나 코어 2 듀오

자네들 신세대가  
기총소사하듯 내뽐으니  
한 때 잘 나가던 나 286  
데이터 처리를 못 하고 제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두 번째도 연산 처리에 과부하

최신 프로세서들이여  
제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 줄여 주면 안 될까?  
나 286 도  
폐기 처분되기 전까지는  
활동하고 소통하고 싶다

옛날 자존심 다 접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다.

<공중부양>

강물이 흘러가듯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얹어야 할지?  
지나간 것들은  
다시 올 수 없어 항상 그림다  
모두들 움직이는데  
왜 나는 정지해 있고 싶을까?

현실과 엇박자인 생각  
이래가지고는 세상에서 뜨기 글렀다  
하기야 안 떠도 그만이고  
떠보았자 뭐가 그리 대단할까?  
알면서도 별 볼일 없는  
그 뜬다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중성.

<네 발 짐승, 두 발 인간>

일반 승용차는  
네 바퀴 짐승차  
보통 트럭은  
여섯 바퀴 곤충차  
대형 화물차는  
열여덟 바퀴 지네차

그런데  
내 할리\*는  
가장 진화한  
두 바퀴 사람차다!

\*: 할리데이빗슨 모터싸이클

### <취급주의>

오래 써 늘어난 가죽 부대에  
쳐진 내장, 고장 난 장기,  
부러질 것 같은 뼈들을  
주섬주섬 주워담아 끌고 다닙니다.  
빛바랜 세월도 쑤셔 넣었습니다.

살짝 부딪혀도 멍들어 깨지고  
조금만 긁혀도 찢어집니다.  
유효기간 지난 이 자루몽치를  
얼마나 더 오래 싸들고 다닐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폐기처분 해야 하는 지도요.  
겨우 맞춰 놓은 부속들이 언제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아, 저기 좀 보세요.  
낡은 가죽 부대가 뒹뒹 움직이고 있네요.  
취급주의 품목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양반들, 길 좀 비켜 주세요.  
잘못 건드리면 와장창 깨집니다.  
허약한 거드름 애써 부리며  
못 말리는 고집불통,  
제멋에 폼 잡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저래 꾸부정히 우습게 보여도  
반세기도 넘는 오랜 세월  
끊임없이 다듬어진 산 조각품입니다.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 예술품이지요.

### <욕이 나온다>

위장전입 한 번 못 해보았고, 논문 표절할 학력도 없고, 투자가 사기 칠 머리도 없고, 뇌물 갔다 바치는 자리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부동산에 투기할 재력도 없고, 세금 속일 돈도 없고, 국방의무를 다하고 또 자식까지 군대에 보내는 덜떨어진 밑바닥 인생은 높은 자리를 바라볼 자격이 없다. 악삭빠르게 도덕과 법과 규율과 정의를 다 무시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수완도, 배짱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감히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장관, 총리, 더 나아가서 대통령 자리까지 바라보다니?

그런데 한편, 규율을 지키며 정직하게 법을 따르는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멀거지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 이 세상이 저주스럽다. - 에잇, 열여덟(10.8) 우라질 놈의 세상!  
웬지 우리 편일 것 같은, 꼭 막힌 수완 없는 멍청이 바보가 그림다. 무척 그림다.

\*\* 2009 년의 정치판 풍자. 대통령, 국무 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의 행력.